特別寄稿

WEC業務에 参与해 오면서

南 廷 一
(韓電技術研究院長
WEC企劃委員)

本人이 처음으로 WEC會議에 參加한 것은 74년 美國 Detroit市에서 열린 제9차 總會 때였다. 당시 다른 用務로 Kaiser Engineering사(캘리포니아주 오크랜드시 소재)에서 2個月間 出張中에 個人的인 관심이 있어 기회를 내어 일부 프로그램에 방청객 資格으로 參加한 것이다.

公式的으로는 76년에 아프리카의 Ivory Coast국의 수도 Abidjan시에서 열린 IEC 會議에 公式代表로 參席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어 韓國電力公社의 調査部長으로 있을때 WEC 國內委員會 業務를 他부서로부터 이관받아 自動的으로 國內委員會 事務局長職(韓電이 國內委員會 幹事 會社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맡으면서 83년 印度의 New Delhi에서 있었던 제12차 總會에 參席하였으며 84년 알제리아의 수도 Algier市의 IEC 회의 및 지난 85년 불가리아의 Sofia IEC會議에도 參加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 國內委員會에서 겪은 重要 事實로는 66년 日本 東京에서 있은 Sectional Meeting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회원 가입 신청이 否決되는 試鍊을 겪었고, 3년후인 69년에 비로소 正式會員으로 加入된 것과 71년 루마니아의 수도 Bucharest에서 열린 제8차 總會에 비자發給拒否로 代表団이 參席치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편 84년 알제리아 IEC會議에서 韓國의 서울IEC 회의 개최 제의(朴正基 國內委員會 議長 招請演說)가 절대다수로 可決된 것과 85년 불가리아 Sofia IEC 회의에서 IEC 副議長(3명)의 한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鄭根謨博士(당시 韓國電力技術(株)社長, 현재 韓電 顧問)가 선출된 것은 매우 뜻있고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83년 New Delhi總會에서는 會員國의 地域性과 經濟開發水準에 따라 배정되는 行政委員會委員選出國으로 우리나라가 스위스, 알젠틴과 더불어 지정되었으며 國內委員會의 추천에 의거 本人이 처음으로 3년(83-86년)임기의 IEC 행정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85년 Sofia회의에서는 각료급으로는 처음으로 李鳳瑞 動力資源部次官께서 參席하여 87 IEC 서울開催에 따른 會議準備와 모든 會員國의 代表招請 問題에 대하여 公式的인 政府의 立場을 천명한 바도 있다.

WEC는 비록 초기에는 WPC(World Power Conference)의 이름으로 주로 電力關聯機關들의 非政治的인 民間機構로 發足되었으나, 그후 石炭·石油등의 生産 및 消費가 增大됨에 따라 이들 1次에너지들과 未來에 예상되는 原子力

등 대체자원을 포함하는 폭넓은 意味의 에너지 關聯 會議体로서 役割을 할 수 있도록 68년 Moscow總會로부터 이름을 WEC로 바꾸게 되었다. 또한 WEC總會가 매 3년마다, 그리고 그중간 연도에 해마다 IEC會議가 열리고 있는 것도 이때부터 이며, 그전에는 總會나 Sectional Meeting이 경우에 따라 불규칙하게 개최 운영되어 왔다.

특히 WEC總會에서는 에너지원의 取扱對象에 있어서 1次에너지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原子力 등 特殊先進技術에 대해서는 일부 先進國의 독점물로 認識되는 듯 하여 크게 다루지 않고 있었으나 原子力發電이 開途國에 까지 상당히 보급됨에 따라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消費部門에 보다 많은 活動領域을 넓히고 있다. 특히 73年에 企劃委員會 산하에 保存委員會(Conservation Committee)를 設置한 것도 그러한 理由였다고 본다.

各種 에너지資源은 각기 生産되는 地理的 位置와 지니고 있는 속성에 따라 고유의 用途와 地域性을 갖으며 相對的인 經濟性이나 環境性을 갖기 때문에 資源의 貧富의 경우를 막론하고 地球上에 存在하는 有限資源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配分·使用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로 되었다고 본다. 1924년 WPC의 창시자인 英國 Dunlop경이 "最先進國일지라도 그나라의 發展은 世界全体의 상황에 分明히 左右될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WEC의 設立理念은 에너지資源 및 關聯技術을 人類 모두를 위하여 平和的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WEC 가 電力關係會議로만 認識되어 왔으나 그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래 WPC에 起源한 이유도 있으며 또한 國內委員會의 운영을 韓電이 幹事會社 役割을 함으로써 他部門機關에 대하여 이렇다할 關心事項을 弘報하거나 其他 有益한 自体活動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데 起因 하였다고 보며, 여기에는 물론 財政的인 理由 및 認識의 不足도 國內委員會의 活動이 미흡했던 이由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經濟가 80%가까이 輸入에 의존하는 에너지 産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물량

WEC 總會 開會式 光景

및 安定的 가격 유지에 있어 不確實性이 팽배해 짐해 따라 일관된 國家에너지 政策의 樹立 및推進은 絶对的인 課題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밖으로는 에너지外交(技術情報 資料의 交換, 이해 당사자들간의 直接 对話에 의한 접촉 등)를 積極的으로 展開하고 안으로는 에너지關聯事業間에 相互協力으로 競爭이 아닌 相互補完關係를 이룩하고 共同利益을 추구하는 건전한 政策을 建議하는등 에너지부문의 문제를 綜合的으로 協議, 調整, 建議하는 自体協議機構인 韓國에너지協議會가 發足한 것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87년의 IEC會議 서울誘致의 實現도 우리에게 닥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巨視的이고 次元높은 적절한 수단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IEC의 行政委員會는 1年에 두번씩 열리고 있는데 한번은 總會나 IEC會議期間中(일반적으로 9월)의 Pre-Conference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번은 3～5월경에 前會議에서 미리 定한 場所에서 開催되고 있다. 이경우 本人이 定期會議外에 별도 參加한 會議는 84년 5월 西獨의 Essen과, 85년 5월 英國 Wales 의 Carcliff會議였다. 同會議에서 審議되는 주요문제는 會員國으로부터 받는 會費와 관련된 豫算등 財政問題, 會員의 加入 및 脫退에 관한 資格審查, 總會와 IEC會議 開催場所 및 開催國 의 資格審查등이다. 委員은 總 9名으로 그중 5名은 IEC 幹部 등 當然職이며, 委員長과 總會에서 指名된 委員國(3개국)에서 選出된 3名으로 構成된다. IEC의 幹部와 行政, 企劃委員會 委員들의 構成은 각기 世界를 5個地域으로 區分하여 同一地域에서 3名이 選出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先進國과 開途國, 市場經濟型 國家와 中央統制經濟型 國家, WEC會議 開催와 關聯된 특수한 경우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選定하고 있다. 85년 Sofia IEC에서 IEC 副議長에 選出된 鄭根謨博士는 自動的으로 行政委員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 本人은 行政委員會에서 企劃委員會로 옮겨 殘餘 任期 1년을 남기게 되었다.

84년 5월 Essen會議에서는 韓國國內委員會가 提出한 '87 IEC 開催招請제의를 競爭國이 없이 順調롭게 審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總會나 IEC會議 開催제의는 경우에 따라 심한 競爭을 하는수도 있다. 또는 希望國家가 없어 WEC중앙사무국이 중재에 나서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3년전에 決定되는 慣例를 깨고 자기나라의 특수한 행사와 관련시켜 미리 특정연도를 잡아놓고 呼應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다. 그 例로는 금년에 열리는 프랑스 Cannes總會가 前者의 경우이며,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發見한 500주년이 되는 1992년에 15次 總會 開催를 申請한 스페인(마드리드시)의 경우가 後者의 例이다. 87년 서울IEC 開催는 여러가지 상황이 우리나라의 형편이나 IEC의 立場에서나 모든 條件에 適切하게 맞은 自然스러운 例라고 볼수있다.

行政委員會에서는 때로는 會費滯納으로 會員國 資格을 상실시키는 경우를 審議하는데 對象國의 經濟事情이 매우 어려운 開途國의 경우도 있지만, 흔히 빠젓이 中進國圈에 있는 나라도 자기나라에 配定된 그리많지 않은 年會費의 引上에 대한 不滿表示로 會費納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國內委員會의 에너지關聯機關의 組織構成이 定着이 안되어 行政的 이유로 會費滯納이 되는 경우도 있다.

회원가입이나 會議開催申請등을 審查할 때는 當事國의 政治的 이유와 WEC 定款의 基本精神간에 조정되어야할 어쩔수 없는 사항들이 흔히 發生하고 있다. 83년 中共이 正式加入함에 따라 이미 加入되어 있는 台灣國內委員會의 呼稱問題를 조정하기 위하여 會員國 國內委員會의 呼稱을 National Committee에서 Member Committee로도 부를수 있도록 定款을 修正한 例라든가, 한참 中東戰爭을 치르고 있는 當事國인 이란이 IEC會議를 招請한 경우, 또는 會議開

催를 申請할 때는 모든 會員國 代表들을 入國시키겠다고 한뒤, 막상 會議때에 가서는 특정국가에 대하여 비자發給을 遲延 또는 拒否하는 事例등이 있다.

Algier IEC會議에서 87년 IEC會議를 서울에서 開催하는데 대한 好意的 反應의 結果는 비록 우리가 分斷國家이면서도 國際社會에서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모나지 않게 協力하려는 誠實한 姿勢때문이 아니었던가 判斷된다.

앞제 새로히 發足한 韓國에너지協議會는 우선 적절한 때를 맞추어 誘致한 87년 IEC會議를 成功的으로 치루기 위한 準備에 最善을 다하여야겠다. 아직까지 電力위주의 會議体로 認識되어온 것을 불식하고 에너지부문간의 調和있고 협조적인 체제로 조기정착시켜 관련 기관은 물론, 經驗과 知識을 갖춘 元老 先輩와 專門家들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協議体로서의 役割이 期待된다.

76년에 本人이 처음으로 Ivory Coast의IEC會議에 다녀와서 쓴 報告書에서 "1980年代에는 世界에너지會議(總會든 執行理事會)의 國內誘致를 實現시켜 에너지政策의 國際化를 積極的으로 꾀하여야겠음"이라고 建議한 것이 이제 實現된 것은 우연만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自己努力에 의하여 直接 參與하겠다는 意志가 없이는 所期의 成果를 期待하기 어려울것인바 國內에너지資料의 整備, 蒐集, 普及 및 특히 WEC 企劃委員會 산하 각종 專門委員會에 技術資料의 提出, 會議參加등 활발한 참여계획이 推進되어야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認識과 後援이 따라주어야 할것이다.

中共과 台灣이 83年 이후 한자리에 參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남의 일 같이 생각되지 않기에 87년 서울IEC 회의때는 北韓이 會員加入을 申請하여 왔으면 하는 期待와 可能性을 豫見해 보고 또한 1998년은 우리나라에서 電氣事業이 始作된지 100周年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그때가서는 제17회 WEC總會를 우리 스스로가 主催할 것을 제의해 보는것도 번거로운 일이라고 제쳐만 놓을일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범에너지界의 積極的인 呼應과 協助로 새로 발족한 韓國에너지協議會의 活動이 期待된다.

IEC大會 參加한 各國代表